
		<h1>보도자료</h1>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p>2020년 5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12(화) 오후 4시 이후 보도 가능)</p>					
배포일시	2020. 5. 11(월)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담당과장	김선기 과장(044-203-5240)	담당자	최혁기 사무관(044-203-5241)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  
**- 해외(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국내(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계획 통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12(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하였다.
-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3월~12월),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11월~‘19.4월), ▲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월~), ▲ 관계부처 협의(‘20.4월) 등

**[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 ]**

-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 \* '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

○ 이와 같이,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①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 ②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주요 변화 >

- ◆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20.1~) 및 OPEC+ 감산합의(4.10) 시장기대 미충족 등 수요·공급 양방향 충격으로 인한 저유가 지속 중
- ◆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동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수입국의 선택권이 강화
  - \* 석유생산량 비중(‘19 IEA) : (‘10) OPEC 41.7%, 미국 9.0% → (‘18) OPEC 39.9%, 미국 15.6%
- ◆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부각
- ◆ 호르무즈 해협 봉쇄위기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마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 \*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71.5%, LNG 수입량의 32.4%가 통과
- ◆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심화

③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자원개발' 목표 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

## 【 주요 내용 】

-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 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전략 >

1.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2. 에너지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3. 자원개발 중심 → '자원안보' 전환
①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① 중점지역 선정·개발	①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
② 민간투자 활력 제고	② 신산업 원료광물 확보	② 개발·도입·비축 전략
③ 민관 동반성장	③ 한반도 자원개발	③ 자원안보 인프라 확충

### 1.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18.7)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 구조조정 원칙 : ① 국민부담 최소화, ② 공기업-민간기업 동반성장, ③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한다.

-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 (출자)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사업에 정부출자 지원 등 지속 투자(現 9.3%)

\* (예타)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예시) >

공기업 + 민간기업	민간기업 주도
· (지역) 중동, 신북방, 국내대륙붕 등 · (단계) 탐사 단계	· (지역) 북미, 호주 등 · (단계) 개발, 생산 단계

### 2.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선정기준 : ①자원부존량, ②안전성·근접성, ③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

\*\* 중점지역 : (석유·가스)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 (광물)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 전략지역별 정책방향 >

구분	중점지역	추진방향
석유·가스	북미	·세일가스 경험·기술 축적의 거점화
	중동	·원유 수급안정성 제고 및 자원개발 전략지역화
	신남방	·既定출지역(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중심 자원개발 성공률 제고
	신북방	·중장기 관점에서 패키지(LNG 개발, 생산 운반선 등) 진출기회 모색
광물	중남미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 중심 동·리튬 확보 주력
	동남아·대양주	·인니·호주 중심으로 다양한 광종 도입의 거점화

-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광물(리튬, 코발트 등) 선정·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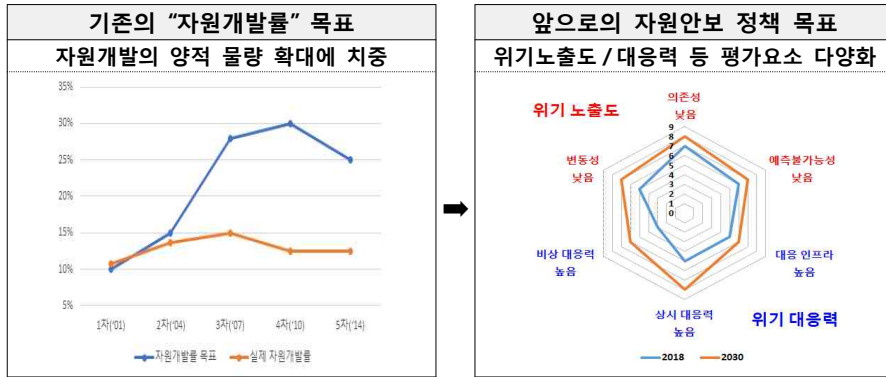
-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 3.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을 전환한다.

-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자원개발률 단일 목표 → (개선) 자원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 반영

< 자원안보 정책설계 방향의 전환 (예시) >



< 국가 자원안보 지표 (예시) >

위기 노출도(Exposure)		위기 대응력(Resilience)	
<b>변동성</b>	• 가격 변동성 (3년) 등	<b>상시 대응력</b>	• 비축/재고 물량 등
<b>의존성</b>	• 자원개발률, 수입의존도 등	<b>비상 대응력</b>	• 비상반입량, 수입다변화 등
<b>예측불가능성</b>	• 전쟁, 재난 가능성 등	<b>대응인프라</b>	•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등

- '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 \* (현장기술서비스) 현장 계측용 IoT장비 개발, 중소 유가스전 디지털오일필드 등 (평가기술서비스) 석유·가스 사업성 평가 등

**【 향후 계획 】**

- 이날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 자원개발 - 도입 - 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주요 추진과제 : ▲국가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운영('20년~), ▲국내 대륙붕 투자 확대('20년~), ▲핵심광종 선정 및 확보 종합 로드맵 수립('21년) 등

- 석유·가스의 흔들림없는 공급과 함께,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개발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별첨)

【붙임 2】 자원개발 기본계획 (별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최혁기 사무관(☎ 044-203-5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